

전봉준 장군 탄생 155주년 기념행사

- 일 시 : 2011년 1월 10(월) 14:00
- 장 소 : 고창문화의 전당



※ 기획 전시 (1월 10일~1월 30일) 21일간

|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행사내용

- 봉정의식
- 축하공연
- 기념행사
- 영화상영



차례

• 전봉준의 눈빛_ 문 병 학	... 4
• 전봉준과 동학농민혁명 연보	... 5
• 동학농민혁명의 의의와 성격	... 8
• 무장기포의 역사적 의미	... 16
• 동학농민혁명의 주역들	... 18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 24

전봉준장군 탄생 제155 주년을 맞이하여

2011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전봉준장군 탄생 제15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열기 위해 일어난 농민항쟁이었습니다. 이는 독일의 농민전쟁, 중국의 태평천국, 인도의 세포이 난과 함께 근대이행기에 전개된 민중항쟁으로 동아시아는 물론 더 나아가 세계사적 의의가 있는 사건으로써 그 중심에 고창이 있었습니다.

고창은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했던 전봉준장군의 태생지이며 동학의 대접주 손화중포의 활동무대였습니다. 무장현 동음치면 당산(공음면 구수)은 1894년 3월 20일 무장포고문을 선포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이 지역봉기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봉기로 출발한 시발지로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운사 도솔암마애불 비기탈취의 현장으로 왕제산, 손화중 도소 및 피체지, 영학당 전투지, 무장현 관아와 읍성, 고창읍성, 동학농민군로 등 동학농민혁명사에 길이 남을 많은 유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각종 기회 교육을 통한 인식확대와 기념행사의 전국화, 동학농민혁명 체험길 조성, 역사기록화 등을 추진하여 고창을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각시키고 아울러 주민의 소득과 연결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재인식은 시대적 요청입니다.

엄청난 시련과 역경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정치·경제·사회 등 근 현대사에 큰 획을 그은 사회 개혁운동이었습니다. 전봉준 장군 탄생 15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자랑스런 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을 이어받아 화합과 단결을 이루어 지역은 물론, 국가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전봉준의 눈빛

문 병 학

저 들판 끝 바람 앞에 선 사내 하나 앙상한 뺨골로 우뚝 서
있는, 서서 죽은 사내의 정수리에 들입다 꽃히는 바람아 네가
졌다 찬찬히 보아라 제 몸 스스로 식혀 정수리로부터 차가운
피 맑게 돌리며 두 눈 번쩍 뜨는 그는 너의 등덜미를 내내
주시하고 있다.

문병학 시인 약력

1989년 『노동문학』(실천문학사)으로 등단했다. 1993년부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힘을 기울여왔으며, 현재 사)한국작가회의 전북지회 이사, 사)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시집은 『지는 꽃 뒤에는』 『필부를 꿈꾼 적 없다』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역사와 그 성격」 「한국 현대사에 나타난 동학농민전쟁 인식」 등이 있다.

전봉준과 동학농민혁명 연보

연 도	관 계 사 항	국내외사건	
1855(1 세)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63 번지 (고창현 산내면 당촌)	철종 즉위	1849.6
1859(5 세)	고창에서 성장	동학창도 농민항쟁 최제우 체포 고종 즉위 최제우 사형 창:태평천국 멸망	1860 1862.2~12 1863.11 1863.12 1864.3 1864
1867(13 세)	고부군 남면 장문리로 이거	일 : 명치유신 신미양요 이필제의 난	1868 1871 1871
1874-75 (20-21 세)	결혼, 부인은 1894 년 이전에 사망 20 대 초반 : 김제 금산면 삼봉리 거야말 거주 20 대 중 · 후반 : 태인 산외면 동곡리 지금실 마을 거주	운양호 사건 강화도조약 임오군란 대원군 납치 갑신정변 대원군 귀국 영국함대 거문도 점령 청 · 일 천진조약	1875 1876 1882.6 1882.7 1884.10 1885. 8 1885
1888(34 세)	손화중과 친교	방곡령	1889
1890(36 세)	30 대 중반까지 태인 동구천, 고부 양교리 등지에서 거주		
1892(38 세)	동학입도 고부 접주로 임명됨 10 월 서안주 · 서병학 공주집회 11 월 삼례집회		
1893(39 세)	2 월 복합상소, 척왜양운동 3 월 삼남집회(보은 · 원평 · 밀양) 이때는 김봉집으로 활동 11 월 고부군수 조병갑에게 등소, 사발통문작성 12 월 전주감영에 등소	전국 각지에서 농민봉기 빈발 삼남지방 가뭄 11 월 30 일 조병갑 익산군수발령	
1894(40 세)	1 월 10 일 고부에서 봉기, 고부성 진격, 17 일 말목장터로 진을 옮김	1 월 9 일 조병갑 고부에 재부임	
	25 일 백산으로 진을 옮김		
	3 월 3 일 무렵 고부민란 해산 20 일 무장에서 1차봉기 무장포고문 발포 농민군 4 대 행동강령 선포 22 일 고부성 재점령 25 일 백산으로 본진을 옮김, 호남 창의대장소 설치 전봉준을 대장으로 추대 29 일 태인 점령		

1894(40세)	4월 3일 전라감영군 백산으로 출동 7일 황토재에서 감영군 격파, 정읍관아 점령 8일 흥덕, 고창 점령 9일 무장 점령 12일 무장 출발, 영광 점령 16일 영광 출발, 함평 점령 18일 전봉준 나주 공형에게 통문을 보냄 19일 전봉준 함평에서 초토사에 원정서 보냄 21일 전봉준 농민군은 나주와 장성으로 진격시킴 23일 전봉준 장성 황룡에서 경군 격파 25일 전봉준 정읍, 태인, 원평 점령 26일 전봉준 전주 삼천에 주둔 27일 전봉준 전주성 점령	4월 2일 홍계훈 양호 초토사임명 7일 홍계훈 전주성 입성 18일 홍계훈 전주성 출발하여 21일 영광 도착. 김학진 신임 전라감사로 제수 27일 이원회를 양호순 변사로, 엄세영을 삼남영찰사로 제수
	5월 7일 전주화약 체결 10일 전봉준 태인에 도착 농민군집강소 통치 실시	5월 5일 청의 섭사성 부대 아산만 상륙 6일 오오토리 공사 인천항 상륙 9일 혼성 여단장 오오시마 인천 상륙
	6월 25일 김개남 남원 입성	6월 21일 일본군 경북궁 침범 민씨 정권 몰락 23일 풍도해전 25일 친일 개화파정권 수립 (김홍집 내각), 군국 기무처 설치
	7월 2일 전봉준 남원에 들어감 일본군 궁궐침입 소식들음 6일 김학진과〈관민상화〉맺음 김학진을 우군으로 포섭 집강소 통치가 감사의 이름으로 공식인정 15일 남원대회 개최	7월 1일 청일전쟁 선전포고
	9월초 원평에서 2차 기병문제를 숙고, 전주에서 직속 부대의 준비를 완료 삼례 진출, 최경선·조준구·송일두·최대봉 특근과 기병문제 논의 12일 본격적 2차 기병 결정, 삼례 집결통문 띄움 9월하순 동학과 갈등 해소	9월 10일 이두황이 죽산부 사로, 성하영이 안성군수로 임명 21일 신정회가 도순무 사로 임명. 양호 순무영 설치 28일 신임 조선주재 일본공사 이노우에 서울 부임

1894(40 세)	<p>10 월초 전봉준 여산과 은진을 거쳐 강경포에 진출 16일 논산에서 충청도감사에게 격문을 띄어 항일전선 구축을 촉구 23일 이인에서 접전 24,25 일 효포와 곰티에서 접전 26 일 전봉준 경천으로 철수 논산으로 본진 옮겨 전열 재정비</p>	<p>10 월11일 이규태 서울출발 남하 15 일 일본군 용산 출발 남하 21 일 이두황 목천 세성산의 농민군 격파</p>
	<p>11 월초 전봉준 분대를 노성과 경천 진격 8 일 공주로 진격 9 일 공주 대화전 (우금치, 표효, 곰티, 곰나루, 금학동) 10 일 김개남 진잠 진격 11 일 곰티에서 관군의 기습공격당함 노성으로 철수 김개남 회덕 함락 12 일 전봉준 「고시 경군여영병이교시민」을 띄워 항일전선을 재차 촉구 13 일 김개남 청주 공격 실패 15 일 정부 · 일본 연합군과 노성에서 접전 논산 황화대에서 정부 · 일본 연합군과 접전 전주로 철수 23 일 전봉준 전주성 출발, 원평으로 남하 25 일 원평 구미란에서 정부 · 일본연합군과 접전 27 일 태인에서 정부 · 일본 연합군과 접전 농민군 해산 직속부대에게 상경 지시 29 일 전봉준 수하 몇 명과 임암산성에서 일박 30 일 백양사에 도착</p>	
	<p>12 월 1 일 손화중 농민군 해산, 최경선 체포, 김개남 체포 2 일 전봉준 순창 피노리에서 체포 5 일 전라도 남해안의 농민군 장흥 점령 7 일 전봉준 일본군에 의해 담양부로 압송 10 일 전라도 남해안 농민군 강진병영 습격, 점령 11 일 손화중 체포 12 일 영동 용산장터에서 관군과 싸워 농민군 승리</p>	
1895 년 (41 세)	<p>2 월 9 일 제1차 심문 11 일 제2차 심문 19 일 제3차 심문</p>	
	<p>3 월 9 일 제4차 심문 10 일 제5차 심문 29 일 사형선고 30 일 교수형</p>	<p>을미개혁 1895. 3</p>

동학농민혁명의 의의와 성격

1. 동학농민혁명의 의의

1) 반봉건 반외세 투쟁의 최고봉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후기부터 쌓였던 봉건적 모순에 대한 불만과 외세의 침탈, 특히 일본의 침략 행위에 반대해서 일어난 대규모의 민중운동이고 민족운동이었다. 농민군은 보국안민(輔國安民)·척양척왜(斥洋斥倭) 등을 주창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봉기하였으나, 일본군과 관군에게 패하여 그들의 꿈도 좌절되고 말았다.

봉건정부의 부패와 무능으로 통치 질서가 파탄에 처하고, 청나라 일본 등을 비롯하여 일찍이 자본의 길로 들어선 서구 열강들의 침탈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던 19세기 말엽 조선은 크게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 하나는 안으로 낡은 신분질서를 뜯어고쳐서 모든 민족 구성원이 평등의 원칙 아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개혁, 즉 근대화(近代化)의 과제이고, 또 하나는 밖으로 외세에 자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말하자면 19세기 말엽 조선은 침략을 배격하는 자주적 입장에서 사회적 개혁을 이룩해야 했다. 이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지 못하면 조선은 몰락의 길로 갈 수 밖에 없었다.

19세기 말엽 우리 민족 앞에 닥쳐온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위정자들도 어느 정도는 고민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예로 양반지배층의 위정척사(衛正斥邪 : 조선 말기에 정학인 주자학을 지키고 사도인 천주교를 물리치자는 유교의 이론) 운동과 개화지식인들의 개화운동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운동은 모두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양반층은 위정척사운동을 통해 자주권을 수호하고자 했지만 사회개혁에는 반대했으며, 개화세력은 개화운동을 통해 근대화를 실현하고자 했지만 외



세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침략세력과 결탁했다. 결국 위 두 운동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리하여 사회적 모순과 외세의 침탈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각해졌고, 그 최대 피해자인 농민들이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나선 것이 동학농민혁명이다. 이런 측면에서 동학농민혁명은 시대적 요구에 제대로 답한 아주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새 세상을 향한 기층민중들의 항쟁인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한 해 동안 한반도 전역에서 전개되다가 30~40만명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희생자를 내고 좌절되었다.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은 전근대적 모순과 부패의 척결 즉 근대적 사회개혁을 요구하고 실행해나갔다. 동학농민군은 사회적으로는 신분타파운동을 벌여 양반질서를 붕괴시키고 평등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다. 경제적으로는 세금을 거두는 조세수취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영세한 농민과 상인, 수공업자를 비롯한 직접생산자들의 자립과 발전을 이루고자 했다. 정치적으로는 왕정(王政)체제의 개선을 희망했다. 나아가 동학농민군은 일제의 침략이라는 민족적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며 전민족적인 항일민족운동을 전개했다. 한마디로 동학농민혁명은 당시 조선이 안고 있던 절체절명

의 과제인 사회개혁과 외세침탈 배격, 즉 자주적인 근대화를 이루려 한 반외세 반봉건의 일대 농민항쟁으로 우리 근대사의 성패를 가르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은 불행하게도 일제의 무력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 사건을 흔히 실패한 혁명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우리 근대사의 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은 갑오개혁과 대한제국 시기의 사회개혁 및 항일운동, 의병전쟁, 3·1만세운동, 상해임시정부, 광복군 활동 등 이후에 이어지는 민족운동의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은 현대에 전개된 여러 민주화 운동 즉 4·19 의거와 5·18 광주민주화항쟁 등의 정신적 본령을 이룬다. 이 점은 18세에 동학 접주가 되어 황해도에서 동학농민군의 선봉장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이후 일본인 밀정 살해, 신민회 및 상해 임시정부활동, 광복군 조직, 해방 이후 국가건설과 통일운동에 앞장서는 등 민족지도자의 길을 올곧게 걸어온 백범 김구 선생의 생애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는 한국 근대사 최초의 전 민족적인 대규모 민중항쟁이라는 점과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반외세 반봉건 운동의 기치를 전면내건 최초의 대규모 민중혁명이었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역사적 의의가 있다.

2)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 민중혁명

동학농민혁명은 독일의 농민전쟁, 중국의 태평천국혁명과 함께 중세 말, 근대이행기에 발발한 세계사적으로 드문 일대 사건이었다. 이 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은 단지 우리나라에만 국한될 역사적 경험이라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적 차원으로 그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켜 나가기에 매우 적합한 역사적 자산이라 말할 수 있다.

3) 민중적 유토피아의 추구

동학농민혁명은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지배층의 억압과 수탈에 맞선 투쟁, 외세의 침략행위에 저항한 투쟁이었다. 또한 그것은 “전통”과 서구적 근대가 충돌하는 현상이기도 했다. 근대적 권력(식민권력, 자본권력)의 침략에 맞서 이 땅에서 나고 자란 민중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저항이었고 민중적 유토피아를 꿈꾸는 움직임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는 당시 민중들의 꿈과 희망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준다. 농민군이 추구한 사회는 생명과 자연을 존중하는 사회, 모든 억압과 차별·배제 없이 상생하는 사회,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균산주의에 입각하여 상생하는 민중적 유토피아였다. 이 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은 다른 어떤 역사적 사건보다 감동과 교훈이 풍부하다. 21세기적 관점에서 보면 동학농민혁명은 일제 하의 민족해방운동이나 해방공간의 통일 민족국가 수립운동, 분단 이후의 민주화운동보다 감동과 교훈 더 풍부하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은 21세기적 상상력의 보고이다. 농민군의 꿈과 희망은 서구적 근대를 넘어서 새로운 문명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동학농민군의 꿈과 노력은 세계사적으로 근대가 가진 파괴적 측면과 한계가 강조되면서 근대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문명적 대안이 요청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더 없이 중요한 자산이므로 세계사적 차원에서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4) 부패한 사회가 초래한 민중의 고통과 피해

농민혁명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민중이 부패하고 부정한 세상, 자신들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세상을 “하늘과 땅을 뗫돌삼아 갈아버리고 싶은” 심정, “난리(전쟁)나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들고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 결과 발발한 “난리”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가져왔다.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민중들의 고통과 피해를 초래했다.

이는 정직하지 않은 사회, 부패한 사회, 억압과 차별이 횡행하는 사회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고통과 피해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5) 민족 구성원 간 화해와 협력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군의 침략행위가 노골화하자 농민군은 자신을 진압하기 위해 대치하고 있던 관군에게까지 “도는 달라도 척왜척화의 뜻은 하나이므로 골육상전을 피하자”고 하였다. 농민군은 인간성을 상실한 지배층의 억압과 파괴적 근대 권력의 침략에 대해 반대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화해와 협력을 주장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은 세계사적 차원에서 이미 오래 전에 사라진 이념갈등을 남북이 함께 극복하고 통일과 민족화해의 길, 상생과 협력, 관용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자산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잔존해 있는 이념적 갈등과 소모적·파괴적인 남북대립이야말로 농민군이 꿈꾸고 희원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극복되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6)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분기점

동학농민혁명은 안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개혁인 갑오개혁을 불러왔고, 밖으로는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결정적 분기점인 청일전쟁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청일전쟁의 결과 조선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일본은 본격적인 제국주의의 길로 치닫게 되었다.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한 청나라는 서구열강과 일본의 침략을 받아 반식민지 상태로 몰락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식민지로 전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 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은 단지 우리나라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굴곡과 긴 역정을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역사적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는 훌륭한 자산이라 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단지 116년 전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동학농민군이 꿈꾸고 실현하고자 했던 세상이 실현된 것도 아니다. 하지만 동학농민혁명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자산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기억되어야 하고, 그 기억에 기초하여 우리는 우리 사회의 개혁뿐만 아니라 그 자산을 세계적으로 확산하여 크게는 인류사적인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역사적 과제에 맞서야 할 것이다.



2. 동학농민혁명의 성격

동학농민혁명 과정에 나타난 각종 포고문이나 창의문, 폐정개혁안, 격문 등을 분석한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1) 전국적인 농민전쟁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은 전라도 53개 고을과 충청도 35개 고을, 경상도 14개 고을, 강원도 12개 고을, 황해도 4개 고을과 경기, 평안, 함경도 지역에서도 봉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세력은 농민층이었다. 농민군 조직의 지도부는 동학교단과 일정한 관련이 있고 가난한 선비들과 토반들의 가세가 있었지만 일반농민들이 그 중심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지역적으로는 백산봉기 단계에서부터 충청, 경상도 지방에서도 농민군이 봉기하여 지방관아를 점령하였고 전주성이 점령된 후에는 충청, 경상도 지방 각 고을의 봉기가 이어졌다. 집강소 개혁과 9월 봉기 단계에서는 충청, 경상도 뿐만 아니라 경기, 강원, 황해, 평안도 지역까지 확대되었으며 황해도 지역에서는 해주성이 점령 되고 농민군 지도부가 몰락한 이듬해까지도 농민전쟁은 지속되었다. 동학 농민혁명은 봉건체제의 모순이 심화되어 농민층이 가혹한 수탈과 억압을 스스로 극복 하기 위한 농민전쟁이며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저항한 중국의 태평천국의 난, 인도의 세포이난과 함께 동양의 3대 반외세 농민전쟁이었다.

2) 반봉건운동이었다

농민군이 발표한 각종 자료에는 조선의 봉건왕조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대목은 없다. 〈무장포고문〉에는 농민군의 적이 국왕이 아니라 권세있는 귀족들이었다. 폐정개혁안은 농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는 조항들이 대부분이었다. 즉 봉건적인 토지 소유관계로 인한 각종 수탈의 제거와 봉건적인 신분제의 타파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농민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치의식은 점차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므로 동학농민혁명은 지도부가 지닌 반봉건성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봉건체제를 해체시킨 반봉건운동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최초의 근대개혁인 갑오개혁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3) 반침략운동이었다

척양척왜의 구호에서 보듯 동학농민혁명은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민족자주운동이며 반식민지화 운동이었다. 갑오개혁의 온건적인 개화파정권이 청나라의 원병을 요청함으로써 인하여 농민군은 청군과 개화정권까지도 적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9월 재봉기의 주된 요인은 일본군에 의한 경복궁 쿠데타와 일본의 내정간섭에 있었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반침략운동이었다.

이러한 반봉건 반외세의 철저성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은 나라 안팎으로 동조세력을 얻을 수도 없었고 결국은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실패는 청일전쟁으로 인한 동북아시아의 질서의 재편을 불러왔고 외세와 이에 결탁한 조선의 지배세력은 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무장기포의 역사적 의미

고부농민항쟁에 참여한 농민들은 신임군수 박원명의 설득으로 3월 초 해산하였다.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부는 고부 안핵사 이용태가 만행을 벌이자 무장의 손화중 포로 갔다. 손화중 대접주를 설득하여 봉기를 결정하였다. 그러자 불과 수일만에 수천명의 동학 농민군이 무장 당산에 집결하였다.

3월 20일 농민군 지도부는 <무장포고문>을 발표하고 진군을 시작하여 무장, 고창, 흥덕, 부안, 고부, 태인, 금구, 원평을 거쳐 25일에 백산에 이르렀다. <무장포고문>은 종래의 농민항쟁과 현격히 차별된다. 충효를 바탕으로 하는 유교의 윤리관에 기초한 글이지만 부패한 탐관 오리들을 질타하고 나라의 근본은 백성인데 백성의 근본이 꺾이면 나라가 쇠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폭구민과 보국안민의 당당한 대의를 내건 것이다.

백산에서 전봉준을 대장으로 하는 군사조직을 편성하고 <백산격문>과 함께 <4대명의>를 반포하고 3월 28일부터 태인, 원평, 금구 방향으로 진군하여 고부 도교산에서 관군을 대파함(음력 4월 7일 황토현전투)으로써 본격적인 농민혁명으로 발전하게 된다. 무장기포는 군수 조병갑의 수탈에 항거하는 일개 군현의 지역봉기를 넘어선 전국적인 농민항쟁의 시작이었다.



◀ 茂長縣騰上東學人布告文

이 자료는 茂朱官衙에서 중앙관서에 보고한 첩보문서인 『濤錄』 안에 기록된 내용이다. 수록연대는 1894년 3월에서 1897년까지 걸쳐 있다. 이들 내용은 순전히 자료를 모은 것이어서 기술자의 견해가 없으며 따라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 교토대도서관 부속으로 딸린 카와이 문고(京都大 河合文庫 : 주로 조선의 문서와 고서들을 소장하고 있음)에 소장되어 있다.

茂長縣膳上東學人布告文

人之於世最貴者以其人倫也君臣父子人倫之大者
君仁臣直父慈子孝然後乃成家國能逮無彊之
福今我聖上仁孝慈愛神明聖睿賢良正直之臣
翼贊佐明則堯舜之化文景之治可指日而希矣
今之爲臣不思報國徒竊祿位掩蔽虐明阿意諂容
忠諫之士謂之妖言正直之人謂之匪徒內無輔國之才外
多民之官人民之心日益虐變入無樂生之業出無
保施之策虐政日肆怨聲相續君臣之義父子之倫上
下之分遂壞而無遺矣管子曰四維不張國乃滅而方
今之勢有甚於古者矣自公卿以下至方伯守令不念國家
之危殆徒竊肥己潤家之計鈴〔銓〕選之門視以生貨之路應
試之場舉作交易之市許多貨賂不納王庫反先私藏
國有積累之債不念圖報驕侈淫昵無所畏忌八路
魚肉萬民塗炭守宰貪虐良有以也奈之何民不
窮且困也民爲國本本削則國殘不念輔國安民之方策
外設鄉第惟謀獨全之方徒竊祿位豈可理哉吾徒
雖草野遺民食君土服君衣不可坐視國家之危亡八
路同心億兆詢議以輔國安民爲死生之誓今日之光景
雖屬驚駭切勿恐動各安其業共祝昇平日月咸
休聖化千萬幸甚

※ 자료 출처 : 동학기념재단 이이화 감수 『梧下記聞』과 『隨錄』 비교 正誤 절충문

동학농민혁명의 주역들

고창은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최고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이며, 동학의 대접주 손화중 포의 활동무대였습니다. 1894년 3월 20일(음력 4월 25일) 무장현 동음치면 당피(공음면 구암리 구수)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선전포고이자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무장포고문〉을 공포함으로써 농민항쟁이 지역봉기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농민혁명 대장정의 출발지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고창출신의 동학농민군 가담자는 19,500 여명에 이르며,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한 주역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분들의 뜻을 기리고 공감하기를 바라면서 동학농민군의 지휘체계,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한 주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동학농민군지휘체계

- 총대장(總大將) : 전봉준
- 총관령(總管領) : 김개남 · 손화중
- 총참모(總參謀) : 김덕명 · 오시영
- 영솔장(領率將) : 최경선
- 비 서 : 송희옥 · 정백현



동학농민혁명 가담자

- 총 참 모 : 오시영
- 비 서 : 정백현
- 수 행 : 김홍섭
- 두 령
 - 고 창 : 오하영, 임천서, 임향노
 - 무 장 : 송경찬, 강경중
 - 홍 덕 : 고영(원)숙
- 군 장
 - 고 창 : 홍낙관, 홍계관
 - 무 장 : 송문수, 송진호, 장두일, 곽창욱
 - 홍 덕 : 고영백
- 집강 및 기포장
 - 고 창 : 장동행, 김수병, 엄대영
 - 무 장 : 최서중, 송병욱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지도자

■ 전 봉 준 (1855.12.3 ~ 1895. 3. 30)

혁명가이자 전략가인 전봉준은 1855(철종 6년) 12월 3일 고창현 산내면 죽림리 당촌(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63번지)에서 태어났다.

1862년에 발행된 천안전씨 대동보에서 임술보를 보면 아명은 철로(鐵爐), 아버지는 기영(基永), 어머니는 언양김씨이다. 1886년 천안전씨 세보인 《병술보》에는 휘는 병호(炳鎬), 초명은 철로, 자는 명좌(明佐) 아버지는 기창(基昶)이다. 그 외에도 자는 명숙(明淑)으로 아버지 이름은 창혁(暢赫), 형호(亨鎬)로도 쓰이고 있다.



전 봉 준

전봉준은 35세 전후로 해서 동학에 입도하였으며,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동학의 제2세 교주 최시형으로부터 고부지방의 동학접주로 임명되었다.

1893년 11월에 고부의 농민들은 불법적 수탈을 벗어나기 위해 전봉준을 추대하여 그를 통해 조병갑에게 수세를 줄여 달라고 진정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전봉준은 동지 20여명을 규합하여 사발통문을 작성하고 1894년 1월 10일 고부농민 봉기를 주도하였다.

조정에서는 용인현감 박원명을 고부군수로 임명하여 농민들의 원성을 진정시켰으나 안핵사 이용태가 고부로 내려와 농민군을 잔혹하게 진압하자, 전봉준은 무리들을 해산하고 남접도소(南接都所)가 있는 무장땅으로 내려와 손화중 대접주와 힘을 합하여 1894년 3월 20일 무장에서 창의 포고문을 발포하여 지역봉기에서 전국적인 봉기를 이끌어 냈다.

이후 전봉준은 농민군의 최고지도자가 되어 3월 25일 백산에서 전열을 가다듬어 황토현 승리,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농민군의 희망이 무르익는 듯 하였으나 일본군의 경복궁 강점사태가 일어나자 청일전쟁이 조선에서 일어나는 실마리가 되었다는 것을 천추의 유감으로 생각하고 5월 7일 전라감사 김학진의 제의를 받아들여 전주화약을 맺고 물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침탈 행위가 자행되자 전봉준은 9월 10일 삼례에 총본부를 설치하고 2차 봉기를 단행 공주를 거쳐 서울로 진격하려 했지만 우금치 전투에서 크게 패하여 일제에 의하여 혁명의 꿈은 가로막히고 만다.

태인 전투가 힘없이 끝이 나자 농민군을 해산한 전봉준은 11월 29일 입암산성을 거쳐 김개남을 만나기 위해 순창 피노리로 잠입하였다가 12월 2일 한상현 등이 이끌고 온 주민에게 체포되어 일본군에 인계되어 나주로 이송 후 서울로 압송되었다.

서울에 도착한 전봉준은 재판을 받은 결과 1895년 3월 29일 사형이 언도되었고, 그 다음날인 3월 30일 손화중, 최경선 등의 동지들과 함께 처형되어 41세에 생을 마감하였다.

때가 이르러서는 천지가 함께 했으나
운이 가니 영웅도 스스로 꺾힐 바 없다
백성을 사랑한 정의에 내 잘못은 없노라
나라를 사랑한 붉은 마음 누가 알아주겠나

- 처형되기 직전 남긴 유시 -

■ 손 화 중 (孫華仲 1861.6.22 ~ 1895.3.30)

손화중은 1861년 6월 22일 정읍 과교동(科橋洞)에서 밀양손씨 손호열과 어머니 평강채씨의 2남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름은 정식(正植) 자는 화중 호는 초산(楚山)이다. 손화중의 집안은 정읍의 토반으로 집안이 부유하여 학문을 배워 비범한 재질이었다 한다.



손 화 중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의 실록을 내장산 용굴암으로 옮긴 태인출신 한계 손홍록의 후손이다.

어지러운 세상 십승지를 찾아 처남 유용수와 함께 지리산 청학동에 갔다가 당시 영남 지방에 교세를 확장하고 있던 동학교에 1881년 입교하였다. 입교 2년 후 귀향하여 정읍, 부안에서 포교활동에 전념하다 활동영역을 무장으로 옮겼다.

동생 익중(益仲)의 중재로 익중과 갑계원인 정재찬(鄭在燦 당시 원송면 산수리 거주)의 추천으로 진주정씨들의 집성촌인 성송면 괴치리(槐峙里)에 포교소를 두고 거주하게 되었다. 그 뒤 동학의 남접도소 무장 신촌의 훈장인 김성철이 운영하는 서당과의 연락관계로 포교소를 사천을 거쳐 양실로 옮겼다.

손화중 포의 동학도들이 1892년 8월 고창 선운사 도솔암에 있는 마애불상의 복장에서 검단선사 비결록을 꺼냈다는 소문이 퍼지자 신비의 인물로 떠오르게 되었다.

손화중의 둘째 아들 손응수(1890-1964)가 어머니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전봉준 등 여러 도인들이 봉기를 설득하였으나 시기 상조론을 내세워 처음에는 응하지 않았다 한다. 고부민란 후 전봉준이 무장으로 손화중을 찾아가 설득하자 힘을 합하여 3월 20일 무장봉기를 성사시켰다. 무장봉기는 민란의 차원을 넘어서 혁명적 성격을 띠는 정부를 상대로 한 선전포고로써 지역봉기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혁명으로 전개되었다.

5월 7일 전주화약 이후 나주, 장성 등에 머물렀고, 9월 2차 봉기때는 광주로 내려가 최경선과 함께 나주 일대를 지켰다.

전봉준 주력부대가 태인 전투에서 크게 패해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11월 27일 광주로 후퇴하였다가 12월 1일 거느린 농민군을 해산시키고 고창군 부안면 안현리 이씨재실에 잠거하던 중 이봉우의 고발로 관군에 체포되어 나주와 전주를 거쳐 서울로 압송됐다. 1895년 3월 30일 향년 35세로 전봉준, 최경선과 함께 교수형으로 최후를 마쳤다.



■ 김 개 남 (金開南 1853~1894)

전라좌도를 호령하던 김개남은 1853년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지금실에서 출생하였다. 1890년 경 동학에 입교하여 태인 접주로 활약하며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백산(白山)에서 동학농민혁명군 총관령(總管領)으로 추대되어 황토현전투와 황룡전투를 이끌었으며 전주화약 이후 남원에서 금산 무주 진안 용담 장수 등 전라좌도를 장악했다. 김인배를 대접주로 임명하여 순천에 영호도회소(嶺湖都會所)를 설치하여 영남의 서부까지 세력을 떨쳤다.



김 개 남

김개남은 2차봉기 이후 10월 16일 한양을 향하여 진격 도중 전주에서 남원 부사 이용헌과 고부군수 양성환을 잡았다. 이용헌이 김개남의 근거지였던 남원을 치고 김개남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되자 그 자리에서 김개남이 직접 이용헌의 목을 치고 그의 수행원 2명도 참수했다. 고부군수 양성환은 매맞은 후유증으로 죽었다.

9월 재봉기 때에는 공주로 진격하는 전봉준과 합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11월 10일 청주를 공격하였으나 일본군의 화력에 밀려 패하였다.

김개남은 태인(현 정읍군 산내면) 장금리 매부 서영기집으로 피신하였으나 12월 1일 임병찬이 종성리로 유인하여 고발하자 체포되어 전주로 이송되었다. 전라감사 이도재는 김개남의 위력에 위축되어 서울에 압송도중 농민군에게 탈취 당할 위험이 있다는 핑계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12월 3일 전주서교장에서 참수 됐다.(전주 남문밖 초록바위로 알려짐) 김개남의 머리는 서울로 이송되어 서소문에서 12월 25일부터 3일간, 다시 전주로 환송되어 남문거리 장터에서 3일동안 효시되었다. 그의 나이 42세였다.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1. 전봉준장군 출생지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당촌) 63번지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전봉준장군은 1855년 12월 3일(양 1886.1.10) 천안전씨 집성촌인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당촌 (고창현 산내면 죽림리 당촌)에서 전창혁(기영) 언양 김씨사이 외아들로 태어났다.

고창군에서 전봉준장군의 생가주변 토지 2,813㎡를 1998년 매입하여 2000년 생가(주택 65.6㎡, 부속사 48.0㎡)를 복원하고 전봉준장군 선대 묘소정비와 비문 1기를 세웠다.

전봉준생가는 1894년 갑오년 반외세. 반봉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중항쟁을 주도한 인물이 출생한 곳이다.



전봉준 생가

전봉준장군 탄생기념행사

2007년 151주년에는 천안전씨대중회에서 전봉준장군 영정봉안을 시작으로 2008년 152주년부터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기념행사를 주관하고 천안 전씨 대중회에서 『새야 새야 파랑새야』시비를 세웠다.

2009년 153주년에는 고창문화의 전당에서 봉정식, 현화, 대금연주, 축시낭송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기념행사, 국악칸타타『천명』 축하공연, 2010년 154주년에는 고창문화의 전당에서 봉정의식, 기념행사, 청담보살 영화공연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2. 고창읍성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산9번지 / 사적 제145 호

고창읍성은 조선 단종원년(1453)에 왜침을 막기 위해 전라도 민들이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축성한 자연석 성곽이다. 일명 모양성이라고도 하는데 백제 때 있었던 모양성의 옛성터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65년 4월 1일 사적 제145호로 지정된 고창읍성은 둘레 1,684m, 높이 4~6m, 면적은 165,858㎡로 동양루(동문), 진서루(서문), 공북루(북문) 3개소의 웅성(雍城,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성문밖에 원형이나 방형으로 쌓은 작은 성) 6개소의 치성(稚城, 둘레에 면하여 있으면서 약간 모나게 돌출된 형태로 효과적인 전투수행을 위해 만들어 놓은 구조물), 2개의 수구(水口, 성안의 물이 성밖으로 흘러 나가게 하는 배수구 역할)를 비롯하여 성밖의 해자 등 전략적 요충시설이 두루 갖추어져있다.

고창읍성은 중국, 일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형태로서 행정과 군사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시설이다. 특히 이 성은 여자들의 성밧기 민속놀이가 유명한데, 이는 한 해의 재앙과 질병을 막고자 하는 염원에서 비롯되었다.



고창읍성

성 내에는 동헌, 객사, 등 22동의 조선시대의 관아 건물이 있었으나 병화로 소진된 것을 1976년부터 복원해 오고 있다.

1894년 4월 7일 황토재에서 전라감영군과 싸워 승리한 동학농민군은 홍계훈의 경군이 전주에 입성하였다는 소식에 전주로 향하던 기수를 돌려 7일 밤 고부군 삼거리에서 숙영하고, 8일 홍덕현과 고창현을 차례로 점령하였다. 고창현을 점령한 동학농민군은 고창읍성 안으로 들어가 옥에 갇혀있던 동학교도 7명을 석방하고 군기고를 탈취하였다. 또한 호적 등 장적을 거두어 조사하고 동헌 및 관아시설을 파괴하고 현감의 인부를 탈취하려 하였으나 현감 김사준은 도주하였다. 그리고 읍성앞에 살고 있던 고리업자 부호 대정(大靜)현감을 거친 은수룡의 집을 불태웠다. 전봉준은 농민군들에게 엄하게 규율을 지켜 무고한 백성에게 폐단을 끼치지 못하게 하였고 또 애매하게 잡힌 죄수를 풀어 주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동학농민군은 이날 고창에서 숙영하였다.

3. 무장현 관아와 읍성

전북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149-1번지 일대 / 사적 제346호

무장동헌(전라북도 유형문화재 35호) 객사(전라북도 유형문화재 34호)

무장읍성은 조선 태종 17년(1417년) 무송현과 장사현을 합하여 무장진으로 하고 삼고, 그해 2월부터 4개월여에 걸쳐 축조하였다. 무장읍성은 석성으로 만든 장방형 평지성이다. 성의 남문인 진무루에서 무장초등학교 뒷산을 거쳐, 해리면으로 가는 도로의 좌편까지 뻗어 있는데 성의 둘레는 1,147m 넓이는 144,948㎡이다. 성내에는 객사, 동헌, 진무루 등 옛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고 건물 주변에는 여러 가지 유구들이 산재해 있다.

성 안의 무장객사는 선조 14년(1581)에 건립되었으며, 꺾패를 모셔두고 현의 수령이 매달 삭망에 임금에게 예를 갖추는 정청과, 왕명으로 지방에 내려오는 벼슬아치들의 숙소로 쓰이는 좌·우익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무장 동헌은 조선시대 관아건물

의 대표적 양식으로 조선 명종 20년(1565)에 세워진 목조건물로 정면 6칸, 측면 4칸의 팔작지붕으로 현감이 집무하던 곳이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무장은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그것은 당시 무장지역의 아전들이 거의 동학교도들이었거나 자발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손화중포의 핵심적 근거지에서 부패한 정부의 상징인 관아가 무사했다는 것을 통해 핍박받는 농민들과 서리들까지를 포괄하는 민중혁명으로서의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성 안에는 설새 없이 포를 쏘아대고 한편으로는 관속들을 색출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 밖의 호산봉(여시피)에 설진하고 있었다. 또 혹은 정황을 염탐해낼 길이 없다”고 동학군의 삼엄한 경계태세를 말해주고 있다.

무장현의 신임 현감 김오현이 미처 부임해오지 않아서 난을 면했으나 그는 부임도 못하고 곧 파면되었다. 여기에서 기록적인 사향을 말해두고자 하는 것은 무장출신 동학들의 적극적인 만류로 동헌과 객사 등이 파괴되거나 소진을 면하게 되어 오늘날까지 완전하게 보존됨으로써 문화재로 지정되는 귀중한 유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무장읍성은 무장현 관아와 읍성(2007.8.1)으로 문화재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읍성을 정비하고 있다.



무장현 관아와 읍성(진무루)

4. 왕제산(여시뫼봉 151.1m)

고창군 무장면 신촌리

호남정맥의 한 지맥인 영산기맥이 순창 새재봉에서 분기하여 방장산, 문수산, 구황산, 고산을 이루며 목포 유달산을 향해 뻗어 있다. 구황산에서 분기하여 선운산 방향의 산줄기 경수지맥 15.5km 방향 고창군 무장면 신촌리와 공음면 신대리에 왕제산(호산봉)이 자리한다. 선인봉과 옥녀봉 사이에 있다하여 왕제산이라 부르며, 산의 형세가 여시(여우)꼬리를 물고 있다 하여 여시뫼봉이라 한다. 왕제산은 일제강점기 때 구축한 땅굴 3개소가 있으며 동학농민혁명군이 왕제산에 숙영하는 동안 사용한 과실재 약수터가 있다.

무장에서 세력을 규합한 농민군이 모여 1894년 4월 9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훈련을 마치고 무장을 강화했다는 여시뫼봉 역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중요한 유적 중의 하나이다. 무장기포지의 현장 당피마을로부터 직선 거리로 4.5킬로미터 가량의 거리에 있는 여시뫼봉은 표고 151미터 고지에 불과한 야산이지만 무장에서 약 2킬로미터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사방이 터지고 방위와 공



여시뫼봉

격에 유리한 지형이다. 동학농민혁명군은 이곳에 숙영하면서 관군의 예상침투로에 삼밭이 쇠창살을 매설하고, 공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풀을 묶어 걸초보은의 지혜를 발휘하였다. 동학농민군은 4월 12일 영광에 이르고 4일간 머문 뒤 장성으로 진군하였다.

1970년대까지 서해안으로 침투하는 무장공비를 방어하기 위해 주둔한 전투경찰의 방어 진지가 지금도 남아 있어 왕제산이 전략적 요충지임을 실감케 한다.

농민군이 모여 훈련을 받고 무장을 강화한 왕제산 일대를 테마파크로 조성하기 위하여 신왕초등학교와 주변 토지 42,509㎡를 매입하였다. 주요시설로는 농민군 체험시설기능, 생태체험 관광안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농민군의 의식주 재현, 강당 교육시설, 체험프로그램 콘텐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5. 무장기포지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

1894년 1월 고부민란 이후 안핵사 이용태가 고부에서 농민군가담자를 잔혹하게, 전봉준은 일단 무리들을 해산하여 3월 13일 부하 50여명만을 거느리고 무장으로 내려온다. 당시 호남의 최대 세력을 떨치던 무장의 손화중 등과 힘을 합하여 세상을 바로잡고 왜놈을 물리친다는 것을 요체로 1894년 3월 20일 무장현 동음치면(현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당산에서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전봉준 등 지도부가 밝힌 거사의 대의명분은 이때 발표된 〈무장창의문〉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마을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큰 팽나무인 당산나무가 있어 당산마을이라 불렸고, 아직도 마을 사람들은 구수마을보다는 당산마을이라는 이름을 즐겨 부르고 있다.

무장기포지는 지역봉기인 민란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봉기로 출발한 시발점으로써 동학농민혁명사에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



무장기포지(공음면 구수)

무장기포지는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공음면 주민들이 1백여만 원을 모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89-3번지 외 2필지 478㎡를 매입하여 무장발상지 표지석과 포고문 표지석을 세웠다. 고창군에서 매입한 구암리 590번지 일대를 포함하여 9천여㎡에 1억 2천만원으로 2002년 조형물 1식을 설치하고 주차장, 화장실 신축, 조경사업 등 5억 원을 투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앞으로 무장기포지에 역사기록화 사업과 병행하여 성지화 사업을 추진하고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의 부조물 등을 설치하여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무장기포의 역사적 의의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6. 손화중 유적지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18 / 보물 제1200 호 1994.5. 2 지정

대한불교조계종 제 24 교구 본사인 선운사는 금산사와 더불어 조계종의 전북도내 두번째 본사로서 한국의 명승고찰로 유명하다. 선운사는 577년(백제 위덕왕 24년)에 검단선사와 의운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선운사는 한 때 89암자 24굴 189요사를 갖춘 원찰로 송유역불 정책을 내세운 조선시대에도 국태민안을 기원하기 위해 보존된 대찰이었다. 선운사에는 금동보살좌상 등 보물 5점, 동백나무숲 등 천연기념물 3점, 기타 지방 문화재 등 총 19점의 지정문화재가 있다

선운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기도 하다. 선운사 도솔암 서편 칠송대의 바위 벽면 17m에 달하는 거대한 마애불에는 비결책(秘訣冊)이 들어 있으며 “비결이 세상에 나오는 날은 그 나라가 망할 것이오 망한 후에 다시 흥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1892년 8월 손화중의 포에서는 이 비결을 탈취하였고, 이후 동학교도가 급증하였다 한다. 여기에 대해 오지영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누구나 한번 생각할 일이라고 하노라 도둑은 사람으로서 秘錄에 뜻을 두는 것은 도를 위해 그리한다는 것보다는 道하는 그 사람의 思想程度라 할 수 있으며, 또는 그 당시 조선국가에 백성된 자의 感情如何를 잘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동학의 도는 말부터 ‘今不聞古不聞 今不比古不比之道’라 함과 같이 도를 채 알기도 전에 도 그것이 秘錄 그것을 꼭 취해 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오, 다만 도에 들기 전에 그 사람의 심리가 먼저 세상이 바뀔 것을 바라는 데 있었다 할 것이며, 도에 든 그 마음부터 또한 世上이 크게 바뀐다는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

데서 감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불같은 指目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물밀듯이 동학에 들어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도를 타고 온다는 것보다도 秘錄 그것이 도인의 손으로부터 발견되었다는 것을 異常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었던 때문이라 함이 과언은 아닐까 한다. 다시 말하면 世上에는 큰 가뭄이 들어 만물이 모두다 말라죽으려 할 즈음에 때마침 동학이라는 바람이 불어 구름을 일으키고 단비를 장만하는 機微의 속에서 자연의 衝動으로 그리함인가 한다.”『동학사』

비결사건을 계기로 ‘세상이 바뀔 것을 바라는’ 민중들이 큰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듯이 동학에 입도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때 교도들이 동학에 입도한 중요한 계기는 동학의 교리에 대한 이해나 공감보다 조선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고 예언하는 비결이 동학교도들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 사실 자체에 근거하여 동학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종의 메시아인 것으로 이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손화중 도소

고창군 성송면 괴치리 276-1번지

손화중은 1861년 정읍시 과교동에서 출생하여 십승지를 찾아 지리산 청학동으로 들어가 1881년 동학에 입도하였다. 부안에서 포교활동을 시작하여 정읍을 거쳐 고창군 성송면 괴치리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였다. 양실에 자리잡은 손화중은 동학농민혁명 시작과 함께 도소를 이웃마을 괴치리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손화중 대접주는 무장, 정읍, 고창, 부안은 물론 광주, 나주, 장성, 담양을 아우르는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포교하였다. 손화중 도소가 설치되었다는 흔적은 남아 있지 않으나 정동환씨는 그의 당숙 정휘창으로부터 이곳이 교당으로 쓰였다는 증언을 들은 바 있다고 한다.

그리고 괴치리 주민 정휴관(96세)의 구술에 의하면



손화중 도소

“갑오년 여름 나주성 싸움에 나간다는 동학군들이 암치를 넘어가는데 그 군열이 십리지경에 뻗었다”하여 나주정 벌군이 괴치리 손화중포를 중심으로 집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도소건물은 본채와 사랑채가 ㅡ자형태로 되어 있었으나 몇년 전 건물을 헐고 현재 그 자리에 복분자가 심어져 있다. 발두렁에 위치한 감나무 한 그루는 50년 전에도 현재의 크기였다고 한다. 손화중 도소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고창지역농민군의 세력분포와 동학교단의 근거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손화중 피체지

수강산 산당 : 고창군 부안면 송현리 120 번지 : 손화중의 최후 유적

이두황이 남긴 것으로 알려진 『양호우선봉일기』에 의하면 동학농민혁명 당시 남접농민군의 최대지도자 중 한사람인 손화중은 1894년 12월 1일 농민군을 해산하고 고창군 부안면 송현리 안현마을 수강산 이씨재실로 피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수강산 산당에 몸을 숨기고 있던 손화중은 그의 동생 익중, 조카 영옥등이 정읍에서 처형당하고 집안 조카 순경, 무경, 처남 유용수가 흥덕에서 희생되고 전봉준, 김개남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재실지기인 이봉우에게 “나를 고발하여 큰 상을 받아라”했다 한다. 손화중은 1894년 12월 11일 체포되어 고창현에 갇혀 있다가 1895년 1월 전봉준, 최경선, 김덕명 등과 서울주재 일본영사관에 인도되었다.

같은 해 3월 29일 오후 3시 전봉준 등 21명의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에 대한 최종판결이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에서 사형이 선고되고 다음날 30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봉우는 훗날 영광군수, 증평군수, 증산군수가 되었다 하나 검증이 필요하다. 손화중은 시작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창지방 동학농민혁명사의 핵심인물이다. 고창군은 2008년 고창동학농민혁명성지화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손화중 관련 유적지 및 자료실태조사를 통하여 손화중피체지가 전주이씨 재실임을 밝혀냈다. 이두황의 기록에 나타난 범굴은 침명재(枕溟齋 - 전주이씨 사당)에서 고잔방향으로 100m 거리에 있었다. 이 굴은 6.25 때 은신처가 되기도 하였으나 1999년 송현지구 경지정리를 하면서 논이 되었다.

손화중의 피체지 수강산 산당은 고창군 부안면 송현리 120 번지에 위치한 전주이씨 (장천공파 대사헌공 동문중) 재실로 이진문의 호를 따 지은 침명재이다. 침명 이진문은 1556년 12월 27일 출생하여 1635년 9월 13일 생을 마감했다. 그의 묘소는 수강산 (△ 225.8m) 자락인 어용산(전주이씨 장천공파 후손들은 봉오마을 주변에 있는 산이라 하여 봉오산(160m)이라 한다) 송현리 2 번지에 있다. 침명재는 재실이 있던 자리에 1923년 개축하고 1970년경에 보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손화중 피체지 수강산 산당은 주변의 선운산도립공원, 미당시문학관, 김성수 생가와 연계하여 역사 문화탐방코스로 관광자원화 할 계획이다.



※ 자료출처

신순철,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방향』, 2007.

조용호,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고창』, 2009.

<http://www.e-donghak.go.kr/>.

<http://1894.or.kr/>

〈무장포고문〉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김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며 군신과 부자는 가장 큰 인륜으로 꼽는다. 임금이 어질고 신하가 충직하며 아버지가 자애롭고 아들이 효도를 한 뒤에야 국가를 이루어 끝없는 복록을 불러오게 된다.

지금 우리 임금은 어질고 효성스럽고 자애로우며 지혜롭고 총명하시다. 현량하고 정직한 신하가 있어서 잘 보좌해 다스린다면 예전 훌륭한 임금들의 교화와 치적을 날을 꼬아 기다려도 바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신하가 된 자들은 나라에 보답하려는 생각을 아니하고 한갓 작록과 지위를 도둑질하여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아부를 일삼아 총성스런 선비의 간언을 요사스런 말이라 하고 정직한 사람을 비도(匪徒)라 한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나라를 돕는 인재가 없고 바깥으로는 백성을 갈취하는 벼슬아치만이 득실거린다.

인민의 마음은 날로 더욱 비틀어져서 들어와서는 생업을 즐길 수 없고 나와서는 몸을 보존할 대책이 없도다. 학정은 날로 더해지고 원성은 줄을 이었다. 군신의 의리와 부자의 윤리와 상하의 구분이 드디어 남김없이 무너져 내렸다. 관자가 말하길 “사유(四維) 예의염차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곧 멸망한다”고 하였다.

바야흐로 지금의 형세는 예전보다 더욱 심하다. 위로는 공경대부(公卿大夫) 이하, 아래로는 방백수령(方伯守令)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위태로움은 생각지 아니하고 거의 자기 몸을 살피우고 집을 운택하게 하는 계책만을 몰두하여 벼슬아치를 뽑는 문을 재물 모으는 길로 만들고 과거보는 장소를 사고 파는 장터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허다한 재물이나 뇌물이 국고에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사사로운 창고를 채운다. 나라에는 부채가 쌓여 있는데도 갚으려는 생각은 아니하고 교만과 사치와 음탕과 안일로 나날을 지새워 두려움과 거리낌이 없어서 온 나라는 어육이 되고 만백성은 도탄에 빠졌다. 진실로 수령들의 탐학 때문이다. 어찌 백성이 곤궁치 않으랴.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깎이면 나라가 잔약해지는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런데도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계책은 염두에 두지 않고 바깥으로는 고향집을 화려하게 지어 제 살길에만 골몰하면서 녹위만을 도둑질하니 어찌 옳게 되겠는가? 우리 무리는 비록 초야의 유민이나 임금의 토지를 갈아 먹고 임금이 주는 옷을 입으면서 망해가는 꼴을 좌시할 수 없어서 온 나라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고 억조창생이 의논을 모아 지금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국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노라. 오늘의 광경이 비록 놀랄 일이겠으나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각기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면서 함께 태평세월을 추수하고 모두 임금의 교화를 누리면 천만다행이겠노라.

1894년 3월 20일

전봉준 · 손화중 · 김개남

《 농민군 12 개조 군율 》

- | | |
|------------------------|--------------------|
| 1. 항복하는 자는 대접한다. | 2. 곤궁한 자는 구제한다. |
| 3. 탐학한 자는 추방한다. | 4. 순종하는 자에게는 경복한다. |
| 5. 도주하는 자는 쫓지 않는다. | 6. 굶주린 자는 먹인다. |
| 7. 간사하고 교활한 자는 그치게 한다. | 8. 빈한한 자는 진휼한다. |
| 9. 불충한 자는 제거한다. | 10. 거역하는 자는 효유한다. |
| 11. 병든 자에게는 약을 준다. | 12. 불효자는 죽인다. |

《 사대명의 》

1. 사람을 죽이지 말고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
2. 충과 효를 아우르고 세상을 주게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3. 일본과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를 바로 세우자.
4. 군대를 몰아 서울로 들어가 권귀를 모두 없애자.

《 백산창의문 》

우리가 의를 일으켜 여기에 이름은 그 본 뜻이 결단코 다른 데에 있지 아니하고 백성을 도탄 속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위에 두고자 함이다.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외적의 무리를 몰아내고자 함이다

양반과 부호의 앞에서 고통 받는 민중들과, 방백과 수령 밑에서 굴욕을 받고 있는 아전들은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 원한이 깊은 사람들이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나라, 만일 이 기회를 놓친다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